

'2017 전북방문의 해' 사업 확정

관광객 3500만명 유치 목표... '한국체험 1번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전략 추진

전북도가 '2017 전북방문의 해'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하고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FIFA U-20 월드컵 대회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지정했다.

최근 관광트렌드가 관광행태 다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북도는 전략적으로 여러 국제행사와 전북방문의 해를 연계 활용해 '한국체험 1번지' 슬로건에 걸맞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관광 패스라인(전북투어패스) 등을 기반으로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관광관광 실현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2017 전북방문의 해 3대 추진 전략과 5대 분야 30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32주간 이뤄졌다.

지난 9월에는 교육생 대상으로 교육과 연계한 영농 성공사례 공모한 결과 '떠먹는 군고구마 가공제품 개발'과 '마키를 이용한 장아찌 피클제조', '친환경기능성 작물재배'를 선정했다.

특히, 약초자원식품 전공 18명은 '약초자원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농수산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농산업 CEO' 과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농수산대학의 '전국대표 실습교육장'을 잘 활용한다면 전북농업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농산업 CEO'가 전북 농어업·생명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해 농어업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17 전북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북방문의 해 선언 및 선포식을 내년 2월 중 개최해 한국방문위원회와 MOU 협약 체결, 홍보대사 위촉, 공식여행사 지정, 트래블마트(세일즈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전북의 애호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출항인을 위한 고향방문의 날 운영과 전북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전국 사진 공모전, 시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순화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개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방문의 해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와 2023년 세계잰배리 유치 여건 조성 등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급부상시키기 위해 내년 국제행사 기간과 연계한 관광객 대상 각 분야별 우수상품 및 관광지 소개, 파격할인 제공 등 민간기업과 함께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체관광객 Royal 특별인센티브, 한중무술 문화교류 축제,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해 중화권 등 외국인과의 다양한 문화축제 공연으로 우호증진 및 교류를 확대 활성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Young MICE Community와 세계문화유산 탐방 캠퍼, 내일로연계 관광 상품으로 국내 관광객들과 젊은 층을 타깃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전략이다.

이밖에도, 전북방문의 해 기간 내, 전북 순환관광버스를 당일 도내 순환 버스를 동서 권역 등 2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맞춤형 수화여행 유치 고도화를 위해 공정수화여행을 추진, 숙박비 및 농촌체험비 일부를 지원하고 공정수화여행 운영 코스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수화여행전담지도사 양성 등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6월에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5월 개막식인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홍보 이벤트 행사를 접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물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문위원회 등과 협력을 통해 공식여행사 지정으로 중화권 등 여행사가 직접 전북 관광상품을 만들도록 해 보다 중화권 관광객 입맛에 맞는 상품을 판매를 통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7 전북방문의 해 추진이 우리 지역 관광시장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도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저출산률에 새바람 분다

완주군, 뉴-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지난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저출산 극복 뉴-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공모'에 완주군이 선정됐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선도해 나갈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를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뉴-베이비붐 공모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억원(특별교부세 5.5억원, 지방비 5.5억원)이며, 저출산 극복의 중심축 역할과 주변 지자체와 공공부문 협업을 선도 사업을 파급·

확산 시키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행정 및 지역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완주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구분석 및 인프라 등 지역진단, 완주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으로 출산양육친화화점센터 조성, 출산서포터즈 운영 외 23개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성공적인 선도지자체 모델로 육성된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 주최 232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에 대한 전국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남원시와 완주군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 내부개발 정책 토론회 15일 서울 국회에서 전북 여야3당 도당위원장(정문천, 김광수, 김춘진의원) 주최로 열린 새만금내부개발 정책 토론회에 강호인 국토부장관, 오종남 새만금위원장, 진홍정무부지사, 김현미 예결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갖고 있다.

도, '미래농산업 CEO' 44명 배출

전북도는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과 협업을 통해 '미래농산업 CEO' 44명을 배출했다.

'미래농산업 CEO' 교육과정은 도와 농수산대학 간 협업 일환으로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의 정예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32주간 이뤄졌다.

지난 9월에는 교육생 대상으로 교육과 연계한 영농 성공사례 공모한 결과 '떠먹는 군고구마 가공제품 개발'과 '마키를 이용한 장아찌 피클제조', '친환경기능성 작물재배'를 선정했다.

특히, 약초자원식품 전공 18명은 '약초자원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농수산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미래농산업 CEO' 과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농수산대학의 '전국대표 실습교육장'을 잘 활용한다면 전북농업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농산업 CEO'가 전북 농어업·생명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해 농어업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4만4000명 고용창출 기대

전북연구원, 사업 완료 시점 2020년에 도 GRDP의 3.7% 담당 예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이 본격화되면 최대 4만명이 넘는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전북연구원의 '식품산업 경쟁력의 원천, 국가식품클러스터-도약과 응집을 위한 제안'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기준으로 국내외 20개 기업이 분양(임대 포함) 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5개 기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향후 클러스터 내 R&D 기반이 다져지고 조성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20년에는 최대 4만4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특히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의 3.7%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논의됐던 산업계의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중 공동협력형 식품클러스터 구축', '공동물류센터 건립', '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중 공동 협력형 식품클러스터는 공간적,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으로 민간 위주의 교류 협력을 우선 추진해 교류를 활

성화한 이후 공동연구소 설립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전경련은 외래수 식품클러스터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전북-청다오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공동물류센터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자체적인 물류체계를 지양하고 입주기업 공동의 저비용·고효율 물류체계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인증제도 관련 컨설팅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 무역상사 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집적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가지의 추진방향도 제시됐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및 기능성 소재 신제품의 각축장으로 조성하고 중국과 일본의 식품시장을 겨냥한 동북아

시아 식품산업 허브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과 세계식품엑스포 등을 개최해야 한다.

또 종사자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식품과 문화를 병행하는 명품식품도시로 조성하고, 명문 식품연합대학 등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협력적인 원료 공급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거래·평가기구와 청산소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초기에는 산지유통센터(APC)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 추진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공식적·비공식적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향후 지역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김 풍작... 가격도 높아

올해 전북지역의 김 생산량이 풍작을 이룰 전망이다.

또한 평균가격도 지난해 평균가격 1,063원 대비 42% 정도 높게 거래가 돼 490여억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동절기 주 어업소득원인 김 양식철에 군산시,부안군,고창군 연안에서 김 양식어장 56개소, 4,583.5ha에 7만9,505척을 시설해 지난해보다 7% 증가한 3만3,016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초사리 김 채취를 끝낸 상태로 분망작업을 일찍 한 어가에서는 두벌김을 채취 중에 있으며, 물김 채취 주기는 월 2회 정도 15~20일 간격으로 년중 7~8회 정도 채취하게 된다.

한편 김은 지난해 전국수출 1만 7,787톤 대비 16.7%인 2,970톤을 수출해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품목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특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전북인재육성재단은 15일 전북도청에서 도내 출신 고등학생 35명과 대학생 5명 등 총40명에게 장학금 4,500만원을 지급하는 미래인재 특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최병준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그리고 장학생 및 보호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인재 특기장학생은 도내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및 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점차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최병준 이사장은 "재능을 더욱 갈고 닦을 것"을 당부했고,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시 공고 제 2016-000호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 2가 174-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37,816㎡
 - 사업시행자 : 익산시
 - 승인기관 : 익산시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 12. 16. ~ 2017. 1. 13.
 - 공람장소 : 익산시 산림공원과(063)859-5893, 인화동 주민센터(063)859-3412, 동산동 주민센터(063)859-3427, 훈포면 주민센터(063)859-5893
3. 설명회 개최 및 장소
 - 일 시 : 2016년 12월 28일 14:00
 - 장 소 : 인화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4. 의견제출
 - 장 소 : 공람장소와 동일
 - 방 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각 공람장소에 비치) 제출
 - 의견제출대상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안의 주민
 - 의견제출범위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5. 기타
 - 상기사항은 익산시(http://www.iksan.go.kr)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산림공원과(☎063)859-5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16. 익산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